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요한복음 2 주차 (1:14~1:42)

(2015년 2월 1일 - 2015년 2월 7일)

(제3권 2호)



Missions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B2B** 3 권-2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5 년 2 월 1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한글

헬라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th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1997)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Progra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4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독생자의 영광 (주일)

오늘의 본문 (요 1:14~18)

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5.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16.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17.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18.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원어해석하기

- (14절) 그리고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습니다 (Καὶ ὁ λόγος σὰρξ ἐγένετο)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καὶ ἐσκήνωσεν ἐν ἡμῖν,)
그리고 우리가 그의 영광을 주목했습니다 (καὶ ἐθεασάμεθα τὴν δόξαν αὐτοῦ,)
아버지로부터 홀로 존재하신 영광[을] (δόξαν ὡς μονογενοῦς παρὰ πατρός,)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πλήρης χάριτος καὶ ἀληθείας.)
-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Ἰωάννης μαρτυρεῖ περὶ αὐτοῦ)
그리고 그가 외쳐 왔습니다 말하기를 (καὶ κέκραγεν λέγων·
이 분이 내가 말했던 분입니다 (οὗτος ἦν ὃν εἶπον·)
나의 뒤에 오시는 이 분이 나보다 앞서 존재한 분입니다
(ὁ ὀπίσω μου ἐρχόμενος ἔμπροσθέν μου γέγονεν,)
왜냐하면 그가 [나보다]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ὅτι πρῶτός μου ἦν.)
- (16절)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은혜위의 은혜를 그의 충만으로부터 받았습니다
(ὅτι ἐκ τοῦ πληρώματος αὐτοῦ ἡμεῖς πάντες ἐλάβομεν καὶ χάριν ἀντὶ χάριτος·)
- (17절) 왜냐하면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어졌습니다 (ὅτι ὁ νόμος διὰ Μωϋσῆος ἐδόθη,)
그 은혜와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존재했습니다
(ἡ χάρις καὶ ἡ ἀλήθεια διὰ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ἐγένετο.)
- (18절) 어느 때든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Θεὸν οὐδεὶς ἑώρακεν πώποτε·)
아버지 품 안에 있던 홀로 존재하는 그 하나님, 그가 [그 자신을] 설명하셨습니다
(μονογενὴς θεὸς ὃς ὢν εἰς τὸν κόλπον τοῦ πατρὸς ἐκεῖνος ἐξηγήσατο.)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15절을 읽으십시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합니다. 그의 증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나의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 존재한 분입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로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먼저 “나의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 존재한 분입니다.”라는 말에서 ‘앞서 존재하였다’는 말은 단순히 태어난 시간적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세례 요한이 형인 셈이지요. 단순히 태어난 날만 빠른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사역도 예수님보다 빨리 시작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이 예수님보다 앞선 셈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이 자신보다 앞선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이 말은 이 세상의 시간적 순서와는 전혀 무관한 실존의 근원이신 예수님에 관한 선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시고 세례 요한 자신은 단지 그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자기실존에 관한 고백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와 당신의 관계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15-17절을 읽으십시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창조주임을 보여 주는 세 가지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 세 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16절에서 “우리 모두가 은혜 위의 은혜를 그의 충만으로부터 받았다”는 이 말씀이 어떻게 그가 창조주라는 사실을 입증할까요?

‘은혜’는 인간으로부터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자만이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은혜를 받을지 여부도 인간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4절에서 요한은 그의 영광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으로 묘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에게 계시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17절을 다시 읽으십시오. 17절에는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모세의 율법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어졌고,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존재했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어졌다는 것은 모세가 율법의 창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창시자, 근원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존재했습니다. 존재하였다는 것은 그가 곧 은혜와 진리 그 자체이며 그가 은혜와 진리의 근원이라는 말이 됩니다. 인간인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은 인간을 사로잡고 엮매는 것이었지만 은혜와 진리는 인간들을 율법의 사슬로부터 온전히 해방하는 것이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인간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직접 당신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당신에게 처음 떠오르는 단어나 생각이 있으면 적어 보십시오.

18절을 읽으십시오. 18절은 “어느 때든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품 안에 있던 홀로 존재하는 그 하나님, 그가 [그 자신을] 설명하였습니다”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에 아무도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오직 아버지 품 안에 홀로 존재하던 그 하나님이 스스로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랬기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추상적인 개념이나 그림자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3장 13-18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¹³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¹⁴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¹⁵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¹⁶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¹⁷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¹⁸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고후 3:13-18).

당신은 주의 영광을 보았습니까? 어떻게 주의 영광을 보게 되었나요?(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자신을 설명하였다고 말합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월)

오늘의 본문 (요 1:19~28)

19.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20.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21.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22.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23.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24. 저희는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25. 또 물어 가로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26.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27.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28.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원어해석하기

- (19절) 그리고 요한의 증거가 이것입니다 (Καὶ αὕτη ἐστὶν ἡ μαρτυρία τοῦ Ἰωάννου.)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그에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냈을 때
(ὅτε ἀπέστειλαν [πρὸς αὐτὸν] οἱ Ἰουδαῖοι ἐξ Ἱερουσαλὺμων ἱερεῖς καὶ Λευίτας)
“당신이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을 하기 위해 (τίνα ἐρωτήσωσιν αὐτόν· σὺ τίς εἶ;)
- (20절) 그리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καὶ ὡμολόγησεν)
그리고 그가 부인하지 않았습니니다 (καὶ οὐκ ἠρνήσατο.)
그리고 그가 “나는 그 그리스도가 아닙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καὶ ὡμολόγησεν ὅτι ἐγὼ οὐκ εἰμὶ ὁ χριστός.)
- (21절)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καὶ ἠρώτησαν αὐτόν·)
“그렇다면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τί οὖν, σὺ Ἠλίας εἶ;)
그리고 그가 대답했습니다 (καὶ λέγει·)
“나는 아닙니다”(οὐκ εἰμὶ.)
“그 선지자가 당신입니까?” (ὁ προφήτης εἶσύ;)
그리고 그가 대답했습니다 (καὶ ἀπεκρίθη·)
“아닙니다”(οὐ.)
- (22절) 그래서 그들이 말했습니다 (εἶπαν οὖν αὐτῷ·)

- “당신은 누구입니까?” (τίς εἶ;)
- “우리를 보낸 그들에게 줄 대답을 주십시오” (ἵνα ἀποκρισιν δοῦμεν τοῖς πέμψασιν ἡμᾶς·)
- “당신은 당신 자신에 대해 무엇이라 합니까?” (τί λέγεις περὶ σεαυτοῦ;)
- (23절) 그가 말했습니다 (ἔφη·)
- “나는 사막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ἐγὼ φωνὴ βοῶντος ἐν τῇ ἐρήμῳ·)
- “주의 길을 곧게 만들라” (εὐθύνετε τὴν ὁδὸν κυρίου·)
-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바와 같이” (καθὼς εἶπεν Ἡσαΐας ὁ προφήτης·)
- (24절) 그리고 그들은 바리새인들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καὶ ἀπεσταλμένοι ἦσαν ἐκ τῶν Φαρισαίων·)
- (25절)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질문하였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καὶ ἠρώτησαν αὐτὸν καὶ εἶπαν αὐτῷ·)
- “그런데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세례를 주고 있습니까?” (τί οὖν βαπτίζεις εἰ σὺ οὐκ εἶ ὁ χριστὸς οὐδὲ Ἠλίας οὐδὲ ὁ προφήτης;)
- (26절)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했습니다 (ἀπεκρίθη αὐτοῖς ὁ Ἰωάννης λέγων·)
- “나는 물로 세례를 줍니다” (ἐγὼ βαπτίζω ἐν ὕδατι·)
- “당신들 가운데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분이 서 계십니다” (μέσος ὑμῶν ἔστηκεν ὃν ὑμεῖς οὐκ οἴδατε·)
- (27절) “그가 내 뒤에 온 분입니다” (ὁ ὀπίσω μου ἐρχόμενος·)
- “나는 그의 샌달 끈을 풀기에도 가치가 없는 자입니다”
- (οὐ οὐκ εἰμὶ [ἐγὼ] ἄξιος ἵνα λύσω αὐτοῦ τὸν ἰμάντα τοῦ ὑποδήματος·)
- (28절) 이 일은 요단강 건너편 벳다니에서 있었습니다 (ταῦτα ἐν Βηθανίᾳ ἐγένετο πέραν τοῦ Ἰορδάνου·)
- [요단강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이었습니다 (ὅπου ἦν ὁ Ἰωάννης βαπτίζων·)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이제 본문의 초점은 세례 요한에게로 옮겨갑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파송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정체를 알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그가 그토록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착각을 했습니다. 소문은 예루살렘에까지 퍼졌고 급기야 유대 지도자들이 그가 진짜로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기 위해 사람들을 보낸 것입니다.

19-20 절을 읽으십시오.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라고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어떤 분들은 세례 요한의 이런 모습에서 ‘겸손’이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그를 닮아 우리도 겸손해져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겸손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 대답을 통해 세례 요한은 자신이 증거하려는 사람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례 요한은 바로 앞에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17 절)라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이 말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며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도 진리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만약, 세례 요한의 대답에서 ‘겸손’이 아닌 다른 단어를 떠올린다면 당신은 어떤 단어로 세례 요한을 설명하겠습니까? 떠오르는 한 단어를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인간의 입장에서 세례 요한을 설명하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1 절을 읽으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은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당신이 그 선지자입니까? 연거푸 질문을 합니다. 그 때마다 그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엘리야냐고 물은 이유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서인 말라기서에서 선지자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것 같습니다.

“⁶ 보라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⁶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말 4:5-6).

21절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그 선지자가 당신입니까?”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그 선지자는 신명기 18장 15-22절 말씀에 근거한 것으로 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¹⁵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¹⁶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와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¹⁷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¹⁸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¹⁹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²⁰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²¹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와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²²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와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신 18:15-22).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일컬어 엘리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 11:12~14참조). 많은 성경학자들은 신명기 18장의 그 선지자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세례 요한이 자신을 엘리야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당신의 생각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요한복음 서두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임무와 연관지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이러한 질문을 통해 당시 유대 사회가 얼마나 애타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신명기에서 말씀한 ‘그 선지자’나 ‘엘리야’를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음도 알 수 있습니다. 이같은 시각은 예수님께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여정 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막 8:27).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더러는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막 8:28).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서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증거하기 위해 온사람을 그리스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착각한 그들은 누구입니까? 당시 종교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고 있나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화)

오늘의 본문 (요 1:19~28)

19.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20.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21.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22.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23.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24. 저희는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25. 또 물어 가로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26.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27.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28.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원어해석하기

- (19절) 그리고 요한의 증거가 이것입니다 (Καὶ αὕτη ἐστὶν ἡ μαρτυρία τοῦ Ἰωάννου.)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그에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냈을 때
(ὅτε ἀπέστειλαν [πρὸς αὐτὸν] οἱ Ἰουδαῖοι ἐξ Ἱερουσαλὴμων ἱερεῖς καὶ Λευίτας)
“당신이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을 하기 위해 (τίνα ἐρωτήσωσιν αὐτόν· σὺ τίς εἶ;)
- (20절) 그리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καὶ ὡμολόγησεν)
그리고 그가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καὶ οὐκ ἠρνήσατο.)
그리고 그가 “나는 그 그리스도가 아닙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καὶ ὡμολόγησεν ὅτι ἐγὼ οὐκ εἰμὶ ὁ χριστός.)
- (21절)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καὶ ἠρώτησαν αὐτόν·)
“그렇다면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τί οὖν, σὺ Ἠλίας εἶ;)
그리고 그가 대답했습니다 (καὶ λέγει·)
“나는 아닙니다”(οὐκ εἰμί.)
“그 선지자가 당신입니까?” (ὁ προφήτης εἶσ;)
그리고 그가 대답했습니다 (καὶ ἀπεκρίθη·)
“아닙니다”(οὐ.)
- (22절) 그래서 그들이 말했습니다 (εἶπαν οὖν αὐτῷ·)

- “당신은 누구입니까?” (τίς εἶ;)
- “우리를 보낸 그들에게 줄 대답을 주십시오” (ἵνα ἀποκρισιν δοῦμεν τοῖς πέμψασιν ἡμᾶς·)
- “당신은 당신 자신에 대해 무엇이라 합니까?” (τί λέγεις περὶ σεαυτοῦ;)
- (23절) 그가 말했습니다 (ἔφη·)
- “나는 사막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ἐγὼ φωνὴ βοῶντος ἐν τῇ ἐρήμῳ·)
- “주의 길을 곧게 만들라” (εὐθύνετε τὴν ὁδὸν κυρίου·)
-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바와 같이” (καθὼς εἶπεν Ἡσαΐας ὁ προφήτης·)
- (24절) 그리고 그들은 바리새인들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καὶ ἀπεσταλμένοι ἦσαν ἐκ τῶν Φαρισαίων·)
- (25절)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질문하였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καὶ ἠρώτησαν αὐτὸν καὶ εἶπαν αὐτῷ·)
- “그런데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세례를 주고 있습니까?” (τί οὖν βαπτίζεις εἰ σὺ οὐκ εἶ ὁ χριστὸς οὐδὲ Ἠλίας οὐδὲ ὁ προφήτης;)
- (26절)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했습니다 (ἀπεκρίθη αὐτοῖς ὁ Ἰωάννης λέγων·)
- “나는 물로 세례를 줍니다” (ἐγὼ βαπτίζω ἐν ὕδατι·)
- “당신들 가운데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분이 서 계십니다” (μέσος ὑμῶν ἕστηκεν ὃν ὑμεῖς οὐκ οἴδατε·)
- (27절) “그가 내 뒤에 온 분입니다” (ὁ ὀπίσω μου ἐρχόμενος·)
- “나는 그의 샌달 끈을 풀기에도 가치가 없는 자입니다”
- (οὐ οὐκ εἰμὶ [ἐγὼ] ἄξιος ἵνα λύσω αὐτοῦ τὸν ἰμάντα τοῦ ὑποδήματος·)
- (28절) 이 일은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있었습니다 (ταῦτα ἐν Βηθανίᾳ ἐγένετο πέραν τοῦ Ἰορδάνου·)
- [요단강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이었습니다 (ὅπου ἦν ὁ Ἰωάννης βαπτίζων·)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22-23 절을 읽으십시오.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정체를 묻습니다. 이에 대해 세례 요한은 자신을 “사막에서 외치는 소리”로 소개합니다. 이 말은 “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사막으로부터 외쳐오는 소리입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스스로를 ‘소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 장 3 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40 장부터는 구원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40 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당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와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사 40:1~2).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앞서서 회개를 선포하였습니다. 위로는 그리스도가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선포도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세례 요한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가 광야에서 외쳐야 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한 일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되려면 죄를 지적하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살아날 수 없다는 자각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사람들을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시키는 일을 하였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무능력을 처절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때의 일을 간단하게 적어 보세요. (주위 분들과 나누어 보셔도 좋습니다.)

이사야서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돋우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사 40:3-5).

사람들이 회개하고 굴복하면 구원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여기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평탄하게 길을 내는 것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다가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요. 죄인들이 사로잡혀 움썩달썩 못하고 무릎이 꿇려 있습니다. 그곳으로 하나님이 찾아 오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찾아 오신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구원의 소식을 분명히 들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당신의 개인적인 체험을 적어 보십시오.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읽어보기로 하지요. 이사야 40 장 6-8 절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랴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했을 때 여호와의 기운이 그위에 불이라이 백성을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사 40:6-8).

하나님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또 이렇게 외치라고 명령합니다. 모든 것이 시들고 모든 것이 쇠할 것이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할 것이라고. 결국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인간을 의지해서도 이 세상의 제도를 의지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인간들이 영원히 사는 비결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 6:63).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까? 당신은 정말 확신합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맞는지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그의 샌달끈을 풀기에도 가치가 없는 자 (수)

오늘의 본문 (요 1:19~28)

19.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20.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21.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22.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23.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24. 저희는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25. 또 물어 가로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26.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27.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28.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타니아에서 된 일이니라

원어해석하기

- (19절) 그리고 요한의 증거가 이것입니다 (Καὶ αὕτη ἐστὶν ἡ μαρτυρία τοῦ Ἰωάννου.)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그에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냈을 때
(ὅτε ἀπέστειλαν [πρὸς αὐτὸν] οἱ Ἰουδαῖοι ἐξ Ἱερουσαλὴμων ἱερεῖς καὶ Λευίτας)
“당신이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을 하기 위해 (τίνα ἐρωτήσωσιν αὐτόν· σὺ τίς εἶ;)
- (20절) 그리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καὶ ὡμολόγησεν)
그리고 그가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καὶ οὐκ ἠρνήσατο.)
그리고 그가 “나는 그 그리스도가 아닙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καὶ ὡμολόγησεν ὅτι ἐγὼ οὐκ εἰμὶ ὁ χριστός.)
- (21절)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καὶ ἠρώτησαν αὐτόν·)
“그렇다면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τί οὖν, σὺ Ἠλίας εἶ;)
그리고 그가 대답했습니다 (καὶ λέγει·)
“나는 아닙니다” (οὐκ εἰμὶ.)
“그 선지자가 당신입니까?” (ὁ προφήτης εἶσὺ;)
그리고 그가 대답했습니다 (καὶ ἀπεκρίθη·)
“아닙니다” (οὐ.)
- (22절) 그래서 그들이 말했습니다 (εἶπαν οὖν αὐτῷ·)

- “당신은 누구입니까?” (τίς εἶ;)
- “우리를 보낸 그들에게 줄 대답을 주십시오” (ἵνα ἀποκρισιν δῶμεν τοῖς πέμψασιν ἡμῶς·)
- “당신은 당신 자신에 대해 무엇이라 합니까?” (τί λέγεις περὶ σεαυτοῦ;)
- (23절) 그가 말했습니다 (ἔφη·)
- “나는 사막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ἐγὼ φωνὴ βοῶντος ἐν τῇ ἐρήμῳ·)
- “주의 길을 곧게 만들라” (εὐθύνετε τὴν ὁδὸν κυρίου·)
-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바와 같이” (καθὼς εἶπεν Ἡσαΐας ὁ προφήτης·)
- (24절) 그리고 그들은 바리새인들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καὶ ἀπεσταλμένοι ἦσαν ἐκ τῶν Φαρισαίων·)
- (25절)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질문하였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καὶ ἠρώτησαν αὐτὸν καὶ εἶπαν αὐτῷ·)
- “그런데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세례를 주고 있습니까?” (τί οὖν βαπτίζεις εἰ σὺ οὐκ εἶ ὁ χριστὸς οὐδὲ Ἠλίας οὐδὲ ὁ προφήτης;)
- (26절)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했습니다 (ἀπεκρίθη αὐτοῖς ὁ Ἰωάννης λέγων·)
- “나는 물로 세례를 줍니다” (ἐγὼ βαπτίζω ἐν ὕδατι·)
- “당신들 가운데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분이 서 계십니다” (μέσος ὑμῶν ἕστηκεν ὃν ὑμεῖς οὐκ οἴδατε·)
- (27절) “그가 내 뒤에 온 분입니다” (ὁ ὀπίσω μου ἐρχόμενος·)
- “나는 그의 샌달 끈을 풀기에도 가치가 없는 자입니다”
- (οὐ οὐκ εἰμὶ [ἐγὼ] ἄξιος ἵνα λύσω αὐτοῦ τὸν ἰμάντα τοῦ ὑποδήματος·)
- (28절) 이 일은 요단강 건너편 베타니에서 있었습니다 (ταῦτα ἐν Βηθανίᾳ ἐγένετο πέραν τοῦ Ἰορδάνου·)
- [요단강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이었습니다 (ὅπου ἦν ὁ Ἰωάννης βαπτίζων·)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24 절과 25 절을 읽으십시오. 바리새파에 속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더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세례를 주고 있습니까? (25 절).

이 질문에는 하나님이 보내 주시기로 약속한 어떤 이가 있다는 사실과 그들도 그 사람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음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며 회개를 선포하자 혹시 그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들이 기대한 사람 중 그 누구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세례를 주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들의 질문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람이 무슨 근거와 자격으로 세례를 주는가? 라는 자격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왜 세례를 주느냐? 라는 세례의 목적에 관한 것이지요. 여기서는 목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어지는 세례 요한의 대답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례를 주게 하신 목적에 관한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요 1:31~33 절 참조).

세례 요한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례를 준 것이 아니고, 남들보다 자신이 율법적으로 완전해서 세례를 준 것도 아닙니다. 그가 세례를 준 이유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남들에 비해 도덕적으로 우월해서도, 세상에 우리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준 사명을 모르거나 잊고 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아 자신이 그리스도의 증인인지 점검해 보십시오.

26-28 절을 읽으십시오. 세례 요한은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줍니다. 당신들 가운데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분이서 계십니다. 그가 내 뒤에 온 분입니다. 나는 그의 샌달 끈을 풀 가치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을 자신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온 목적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외에 어떤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당신들 가운데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분이서 계십니다.” 이 말은 이미 이 세상에 그들이 기다리던 분이 오셨으나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아픈 사람들은 병을 고쳐 주는 분을 기다리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으로부터 구제할 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저마다의 방식으로 그를 맞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에 자신을 맞추어 주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자 예수님 이외의 다른 분을 기대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어쩌면 당신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착각한 것처럼 말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당신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만난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약속한 것들을 적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자신을 그분의 샌달 끈을 풀 정도의 가치조차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겸손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단지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실존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이고 높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존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낮아진 자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겸양을 갖추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비천한 존재이니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높이지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으로 우리가 존귀한 자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샌달 끈을 풀 정도의 가치도 없는 자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높아지지 않았는지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목)

오늘의 말씀 (요 1:19~34)

29.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0.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31.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32.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33.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줄 알라 하셨기에
34.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원어해석하기

- (29절) 다음날 (Τῆς ἐπαύριον)
그가 그를 향하여 오시는 예수를 바라 보았습니다 (βλέπει τὸν Ἰησοῦν ἐρχόμενον πρὸς αὐτὸν)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καὶ λέγει·)
“보십시오” (ἴδε)
“하나님의 바로 그 양이 세상의 죄를 지고 있는 분입니다”
(ὁ ἀμνὸς τοῦ θεοῦ ὁ αἴρων τὴν ἁμαρτίαν τοῦ κόσμου.)
- (30절) 다음은 내가 그에 대하여 말한 것입니다 (οὗτός ἐστιν ὑπὲρ οὗ ἐγὼ εἶπον·)
한 남자가 나의 뒤에 오십니다 (ὀπίσω μου ἔρχεται ἄνθρωπος)
그는 나보다 먼저 존재한 분입니다 (ὡς ἔμπροσθέν μου γέγονεν·)
왜냐하면 그가 나보다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ὅτι πρῶτός μου ἦν·)
- (31절) 그리고 나는 그를 알지 못했었습니다 (καγὼ οὐκ ᾔδειν αὐτόν·)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계시되게 하기 위하여
(ἀλλ' ἵνα φανερωθῇ τῷ Ἰσραὴλ διὰ τοῦτο)
물로 세례를 주기 위하여 내가 왔습니다 (ἦλθον ἐγὼ ἐν ὕδατι βαπτίζων·)
- (32절) 그리고 요한이 증거하여 말하기를 (Καὶ ἐμαρτύρησεν Ἰωάννης λέγων)
나는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이 내려와 그의 위에 앉는 성령을 보았습니다
(ὅτι τεθέαμαι τὸ πνεῦμα καταβαῖνον ὡς περιστέρην ἐξ οὐρανοῦ καὶ ἔμεινεν ἐπ' αὐτόν·)
- (33절) 그리고 나는 그를 알지 못했었습니다 (καγὼ οὐκ ᾔδειν αὐτόν·)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도록 나를 보내신 이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ὁλλ' ὁ πέμψος με βαπτίζειν ἐν ὕδατι ἐκεῖνός μοι εἶπεν·)

네가 누구든지 그 위로 내려와 그 위에 내려 앉는 성령을 보게 된다면

(ἐφ' ὃν ὄν ἴδης τὸ πνεῦμα καταβαῖνον καὶ μένον ἐπ' αὐτόν·)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 그이다 (οὗτός ἐστιν ὁ βαπτίζων ἐν πνεύματι ἁγίῳ.)

(34절) 그리고 나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증거하였습니다 (κἀγὼ ἐώρακα καὶ μαρτυρήκα)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입니다 (ὅτι οὗτός ἐστιν ὁ υἱὸς τοῦ θεοῦ.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 다음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외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바로 그 양이 세상 죄를 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두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바로 그 양’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 죄를 지고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잘 설명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전에서 양을 잡아 뿌리는 것만으로는 인간이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모형이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아파트의 모델하우스를 생각하면 됩니다. 모델하우스는 아파트를 분양하기 위해 실제와 동일하게 짓지만 아파트가 완성되면 더이상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모델하우스는 가질 수도 들어가서 거주할 수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의 짐승을 잡아 제단에 뿌린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²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³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⁴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짠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싹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⁵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말이 말할 수 없노라⁶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⁷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일년 일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⁸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⁹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¹⁰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 둔 것이니라”(히 9:1~10).

히브리서 8장 9절과 10절을 다시 읽으십시오. 첫 장막에서 짐승의 피를 드린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구약의 예법은 언제까지 유효합니까?(10절)

10절에서 ‘개혁할 때까지’라고 말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까지를 개혁할 때까지로 볼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히브리서 9장 11-12절을 읽으십시오.

“¹¹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¹²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히 9:11-12).

11절에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또한 12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제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는 말은 우리들의 죄가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한번에 영원히 속죄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당신에게는 진리로 다가옵니까?

2000년전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영원한 속죄가 되었다면 당신이 지금 죄로 인해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당신은 죄로 인한 두려움으로부터 정말로 완전히 자유로와졌습니까?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양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직접 예물로 준비하신 왕이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서 난 양으로 땅에 있는 성전에서 인간의 후손인 레위지파 중에서 제사장을 선발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류 구속이라는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양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대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늘로부터 온 제물로 제사를 드린 사건이 십자가의 구속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포함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어린양이 직접 지시고 참 성전인 하늘의 제단에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어 직접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부터 시간상면 훗날인 지금 우리에게도 그 효력이 온전히 미치게 된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가 희생양이 되셔서 하늘의 제단에 피를 뿌리시고 우리를 위해 영원한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소감을 간단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나는 보았고 증거하였습니다 (금)

오늘의 말씀 (요 1:19~34)

29.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0.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31.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32.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33.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줄 알라 하셨기에
34.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원어해석하기

- (29절) 다음날 (τῆς ἐπαύριον)
그가 그를 향하여 오시는 예수를 바라 보았습니다 (βλέπει τὸν Ἰησοῦν ἐρχόμενον πρὸς αὐτὸν)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καὶ λέγει·)
“보십시오” (ἴδε)
“하나님의 바로 그 양이 세상의 죄를 지고 있는 분입니다”
(ὁ ἀμνὸς τοῦ θεοῦ ὁ αἴρων τὴν ἁμαρτίαν τοῦ κόσμου.)
- (30절) 다음은 내가 그에 대하여 말한 것입니다 (οὗτός ἐστιν ὑπὲρ οὗ ἐγὼ εἶπον·)
한 남자가 나의 뒤에 오십니다 (ὀπίσω μου ἔρχεται ἄνθρωπος)
그는 나보다 먼저 존재한 분입니다 (ὡς ἔμπροσθέν μου γέγονεν·)
왜냐하면 그가 나보다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ὅτι πρῶτός μου ἦν·)
- (31절) 그리고 나는 그를 알지 못했었습니다 (καγὼ οὐκ ᾔδειν αὐτόν·)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계시되게 하기 위하여
(ἀλλ' ἵνα φανερωθῇ τῷ Ἰσραὴλ διὰ τοῦτο)
물로 세례를 주기 위하여 내가 왔습니다 (ἦλθον ἐγὼ ἐν ὕδατι βαπτίζων·)
- (32절) 그리고 요한이 증거하여 말하기를 (καὶ ἐμαρτύρησεν Ἰωάννης λέγων)
나는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이 내려와 그의 위에 앉는 성령을 보았습니다
(ὅτι τεθέαμαι τὸ πνεῦμα καταβαῖνον ὡς περιστέρην ἐξ οὐρανοῦ καὶ ἔμεινεν ἐπ' αὐτόν·)
- (33절) 그리고 나는 그를 알지 못했었습니다 (καγὼ οὐκ ᾔδειν αὐτόν·)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도록 나를 보내신 이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ὁλλ' ὁ πέμψας με βαπτίζειν ἐν ὕδατι ἐκεῖνός μοι εἶπεν·)

네가 누구든지 그 위로 내려와 그 위에 내려 앉는 성령을 보게 된다면

(ἐφ' ὃν ὄν ἴδης τὸ πνεῦμα καταβαῖνον καὶ μένον ἐπ' αὐτόν·)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 그이다 (οὗτός ἐστιν ὁ βαπτίζων ἐν πνεύματι ἁγίῳ.)

(34절) 그리고 나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증거하였습니다 (καὶ γὰρ ἑώρακα καὶ μαμαρτύρηκα)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입니다 ὅτι οὗτός ἐστιν ὁ υἱὸς τοῦ θεοῦ.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나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 세마디는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맡긴 사명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백성들에게 증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기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가족들조차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처음으로 증거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된 것은 놀랍게도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뱃속에서부터였습니다. 누가복음 1 장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첫 만남(영적인 만남)을 그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라는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³⁸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 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³⁹ 이 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⁴⁰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⁴¹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⁴²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⁴³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고⁴⁴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눅 1:38-44).

이를 보면 세례 요한의 사명은 이미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결정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예수님이 잉태된 직후에 바로 알았고 그의 어머니 뱃속에서 기쁨의 표시를 함으로 경배를 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후 성장하여 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본격적으로 백성들 앞에 드러나기까지 빈들에 있었습니다(눅1:80 참조). 그렇다면 그가 빈들에서 지내며 기다린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였을까요? 오늘의 본문 31절을 읽으십시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물로 세례를 주는 목적이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니까?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준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스라엘에 계시하기 위함 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백성들 가운데 섞여 계셨고 아직 공생애를 시작할 시간이 되지 않아 누구 에게도 정체가 노출된 적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입니 다. 오늘의 본문 33 절을 읽으십시오.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해 요단강으로 오셔서 세례 요한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⁴³ 이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⁴⁴ 요한이 말려 가 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⁴⁵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 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 락하는지라”(마 3:13-15).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신 예수님을 향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 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예수님이 죄인이어서 죄를 씻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드러내기 위함이었 습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은 바로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려는 것이었습니다.

34 절을 읽고 세례 요한의 세 마디 증언을 그대로 옮겨 적어 보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당신이 만난 그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를 남들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토)

오늘의 말씀 (요 1:35-42)

35.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36.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7.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거늘
38. 예수께서 돌이켜 그 좇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39.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데를 보고 그 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십시 쪼 되었더라
40.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41.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42.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원어해석하기

- (35절) 다시 다음 날 (Τῇ ἐπαύριον πάλιν)
요한이 그의 두 제자들로부터 [나와] 서게되었습니다
(εἰσπήκει ὁ Ἰωάννης καὶ ἐκ τῶν μαθητῶν αὐτοῦ δύο)
- (36절) 걸어 다니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는 말했습니다 (καὶ ἐμβλέψας τῷ Ἰησοῦ περιπατοῦντι λέγει)
보십시오 하나님의 양입니다 (ἴδε ὁ ἀμνὸς τοῦ θεοῦ.)
- (37절) 그리고 그가 말할 때 그의 두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καὶ ἤκουσαν οἱ δύο μαθηταὶ αὐτοῦ λαλοῦντος)
그리고 예수에게 따라갔습니다 (καὶ ἠκολούθησαν τῷ Ἰησοῦ.)
- (38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στραφεὶς δὲ ὁ Ἰησοῦς)
그리고 그를 따르는 그들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καὶ θεασάμενος αὐτοὺς ἀκολουθοῦντας λέγει αὐτοῖς)
너희가 찾는 것이 무엇이나? (τί ζητεῖτε;)
그들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οἱ δὲ εἶπαν αὐτῷ)
랍비여 (ῥαββί)
번역하면 선생입니다 (ὁ λέγεται μεθερμηνευόμενον διδάσκαλε.)
어디에 머무십니까? (ποῦ μένεις;)
- (39절) 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λέγει αὐτοῖς)
너희가 오라 그리고 너희는 보게 될 것이다 (ἔρχεσθε καὶ ὄψεσθε.)

- 그래서 그들이 왔고 그가 어디에 거하는지를 보았습니다 (ἦλθαν οὖν καὶ εἶδαν ποῦ μένει)
 그리고 바로 그날 그와 같이 거했습니다 (καὶ παρ' αὐτῷ ἔμειναν τὴν ἡμέραν ἐκείνην·)
 그 때가 열 번째시였습니다 (ὥρα ἦν ὡς δεκάτη.)
- (40절)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던 두제자 중의 한 명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Ἦν Ἀνδρέας ὁ ἀδελφὸς Σίμωνος Πέτρου εἷς ἐκ τῶν δύο τῶν ἀκουσάντων παρὰ Ἰωάννου καὶ ἀκολουθησάντων αὐτῷ·)
- (41절) 그가 그의 맏형 베드로를 발견했습니다 (εὕρισκει οὗτος πρῶτον τὸν ἀδελφὸν τὸν ἴδιον Σίμωνα)
 그리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καὶ λέγει αὐτῷ·)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εὐρήκαμεν τὸν Μεσσίαν·)
 메시아는 그리스도(기름부음 받은 자)로 번역됩니다 (ὁ ἐστὶν μεθερμηνευόμενος χριστός·)
- (42절) 그가 그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였습니다 (ἦγαγεν αὐτὸν πρὸς τὸν Ἰησοῦν·)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ἐμβλέψας αὐτῷ ὁ Ἰησοῦς εἶπεν·)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σὺ εἶ Σίμων ὁ υἱὸς Ἰωάννου·)
 너는 게바라 불리울 것이다 (σὺ κληθήσῃ Κηρῶς·)
 번역하면 베드로입니다 (ὁ ἐρμηνεύεται Πέτρος·)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35-37절까지 읽으십시오. 다음 날 세례 요한이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의 증거는 어제와 동일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의 말을 들은 제자들은 요한을 떠나 예수님께로 갑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고 제자들은 무정하게 세례 요한을 떠나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들이 들은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세례 요한의 증거뿐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 한마디가 어떻게 그동안 따르던 스승인 세례 요한을 떠나 예수님께로 가도록 했을까요? 당신의 생각을 말해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공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베드로를 부르시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마 4:18~22, 막 1:16~20, 눅 5:1~11). 예수님은 고기를 잡고 있던 안드레와 베드로를 불러 제자로 삼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그의 스승인 요한을 떠나 예수님에게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서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것은 요한복음이 공관복음과는 다른 관점에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된 시점’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앞서 세례요한의 증거를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게’되었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기록되었음을 유념하며 읽어야 합니다. 이를 도외시한 채 성경을 추측하여 읽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게다가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억지로 짜 맞추는 것은 바람직한 성경 읽기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두 제자가 예수님께로 갑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의 형제(동생)인 안드레고 다른 한 사람은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많은 분들은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 자신일 것으로 추측합니다.

38-39절을 읽으십시오. 안드레와 다른 한 제자는 예수님의 거처를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오라 그리고 너희는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곧 ‘부르심’입니다. 그들은 그날 저녁 예수님께로 왔고 예수님과 함께 거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인간들의 결심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너희는 오라”라고 말씀하시며 당신을 부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경험이 있다면 간단하게 그 경험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40-42절까지 읽으십시오. 먼저 예수님을 따르게 된 안드레가 그의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합니다. 41절에서 안드레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41절을 다시 한번 읽으십시오. 안드레의 형인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적어 보십시오.

예수님은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꾸어 줍니다. 어부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순간입니다. 당시 이름은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 주는 것으로 누구에게나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정체성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베드로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당신은 이름을 바꾸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영적 정체성은 엄청난 변화를 겪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후 변화된 정체성(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을 자신의 말로 설명하세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 (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